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孫井植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3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e-mail: kfpa8769@chollian.net

(月刊) 第136號

THE FISHING PORT NEWS

1999年 4月 25日(日曜日) (1)

한·일 어업협정 후속조치 조속 마무리

한·중 어업협상추진기획단 운영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

마리나 피싱 관광형 등 다목적 어항 개발

해양수산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밝혀

정상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4월3일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일 어업협정의 대책과 수산진흥종합대책 등에 대해서 보고했다.

정상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 어업인 손실보전을 위한 지원을 당초 300억원 규모에서 13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감척 및 폐업지원, 이동조업과 업종전환에 따른 어구매입, 실업어선원생계비 보조, 해외어장개발 등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중 어업협상

과 관련해서는 국익에 손실이 없도록 추진하되 해양수산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외교부, 해경, 수산진흥원, 시·도,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어업협상추진기획단'을 운영,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방안 수립 및 어업인 지원대책을 사전에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천 장관은 또 △환경친화적인 양식기술의 개발과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 △해양생물 환경 공학기술 등을 활용한 바다목장사업 본격 추진 △EEZ의 효율적 관리 위한 대폭적인 장비 확충 및 해양경찰을 광역경비체제로 개편 △수산물 특성

을 반영한 유통구조 개혁 및 시설 현대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어항·어촌 개발 △제2건국 정신으로 어업인의 의식개혁 추진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 올해부터 2004년까지 6조원의 투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어항·어촌 개발에 대해서는 마리나, 피싱, 관광형 등 다목적 어항개발을 추진하고, 전국 1700여개의 어촌계를 160개 권역으로 묶어 종합개발하고 체험어장 조성 등으로 도시민의 레저수요에 부응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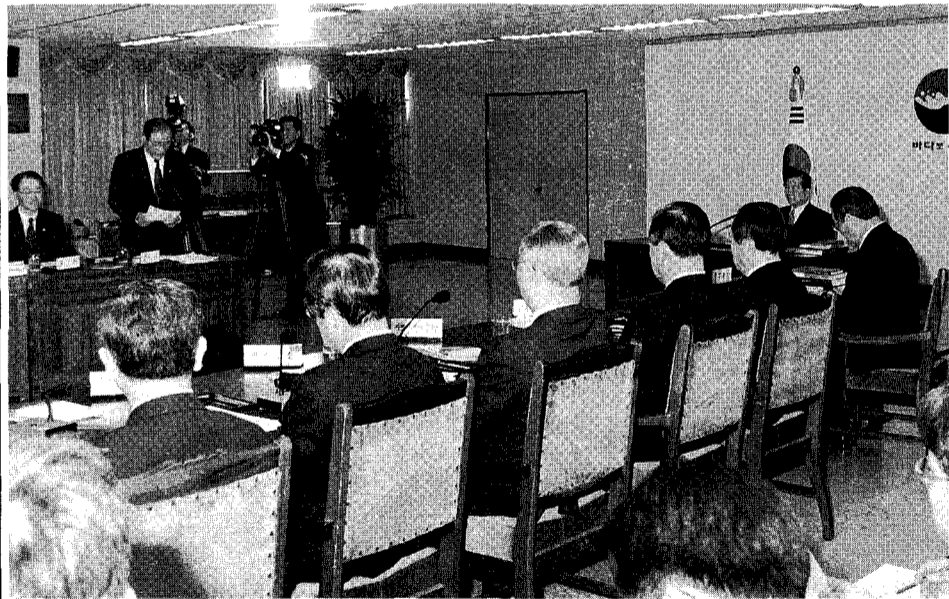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인 2000년의 예산은 미래대비와

경제 재도약에 초점을 맞춰 재원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SOC투자과 지식·정보·문화부문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키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특히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정도 늘어난 90조8000억원 수준에서 편성, 재정적자를 국내 총생산(GDP)의 4~5%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아래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를 올 수준으로 동결하되 SOC 등 중점지

원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최고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위는 각 부처로 하여금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SOC투자과 문화·관광·정보화사업비,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지식기반인력양성, 과학기술, 사회복지·환경사업비 등 중점지원 분야는 올 예산 대비 120% 이내에서 결정토록 하고 농어촌·국방 등 일반투자사업비는 한자리수 증가율내에서 예산을 요구토록 했다.



■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월3일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일 어업협정의 평가 및 후속대책, 한·중 어업협정 추진대책, 수산진흥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연구체제 구축 어항기술력 향상 도모

한국어항협회·중앙대학교 협동연구기관협약 체결

한국어항협회는 중앙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와 협동연구기관협약을 체결, 연구협력체제의 구축과 함께 어항제도 및 정책과 기술분야의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국어항협회는 4월 20일 중앙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와 어항에 관한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어항관련 용역업무, 업무대행용역 및 관련 분야의 기

술력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동연구기관협약 체결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어항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식한데서 출발, 어항관

련 협동연구와 연구위원의 교류, 정보의 교류 등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와 양 기관의 연구활동 발전과 어항의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도 SOC 예산 대폭 증액

정부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한 인프라확충

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최근 새

최근 어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방법이 세간에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세칭 일류대 출신보다는 푼푼 튀는 아이디어와 어느 한 방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면접만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보도된 바로는 대학요제 출신도 있었고, 운동선수 출신도 있었으며, 개그맨 지망생도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전문가의 시대이다. 다시 거론하기가 거북하지만 한·일어업협상의 '쌍끌이 어업'과동도 궁극적으로는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일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어항협회가 이에 부응, 연구 중심의 협회로 탈바꿈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론과 지식과 실무를 겸비하지 않고서는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92년 7월 처음으로 부설 어항어촌개발연구소를 발족시켰을 때만 해도 조직체제상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부 연구용역사업을 수차례 수행해 왔으며,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를 정례화하여 2차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 버렸다.

협회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에 이어 구미지역의 어항관련 정책과, 기술자료 수집 분석에 나서는 한편, 전문성과 기술성을 고루 갖춘 연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어항인 육성에 최상의 노력을 경주할 의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독특한 모습인 연구와 실무의 괴리현상을 타개키 위해 연구소 조직도 아울러 개편했다. 즉 기존의 연구소장직을 협회회장이 겸직함으로써 연구와 실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비상임 연구위원을 대거 보강함으로써 연구소의 체제 준비를 단행했다. 아울러 연구원도 함께 보강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구인력의 확충을 이룩했다.

어항어촌개발연구소는 이를 계기로 기존

의 어항건설 및 어촌환경 정비에 관한 조사연구는 물론, 실용적 기술에 대한 연구회와 강습회 등을 수시로 개최, 어항어촌개발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어항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자임할 계획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협회는 지난 4월20일 중앙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와 협동연구기관 협약을 체결, 앞으로 어항분야의 연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작정이다.

누차 밝혔듯이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다. 오늘의 선진기술이 내일은 이미 구닥다리 기술로 전락할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는 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피나는 노력의 경주 없이는 이 치열한 국제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기 힘들 수밖에 없다.

한국어항협회가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이처럼 연구중심의 협회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 것이다. 우리 어항산업의 미래를 국내 유일의 어항관련 단체인 우리가 직접 떠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자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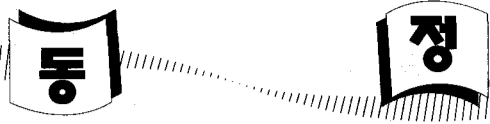
그래서 어항산업에 정통한 전문인을 양성하고, 전문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어항산업의 선두주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협회가 되자는 것이다.

선진 수산국에 비해 뒤진게 우리에게서 너무도 많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모름지기 깨어있는 협회, 연구하는 협회가 어찌면 유일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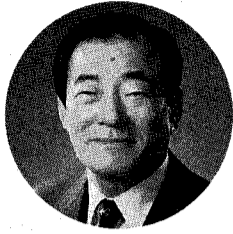
모두에서 이야기한 대기업의 전형적인 신입사원 채용방식도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시대가 팽방미인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느 한 방면의 특출한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푼푼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어항산업의 각 방면 전문인력이 수없이 양산되어 21세기를 주도하는 협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1세기를 주도하는 연구중심 협회로



목포지역 어업인 대표자 간담회 주재



鄭相千 해양수산부장관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10일 취임후 처음으로 소속 기관장 회의를 주재, 전 직원이 새로운 다짐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한·중 어업협상과 관련하여 생생한 어업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 14일에는 목포지역을 방문하여 한·일 및 한·중간 어업협상과 관련 어업인 대표자 간담회를 주재, 15일에는 국립수산물진흥원을 순시하고 기르는 어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손정식 한국어협회장은 4월2일 프레젠테이션에서 열린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관 세미나에 참석, 8일에는 일본 수산타입즈사 오오조라 기사를 접견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 환담, 12일에는 한국행정학회 주관 세미나에 참석, 14일에는 성남시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참석, 16일에는 자민련 정책위원회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회의에 참석, 20일에는 협회회의실에서 시공회원사 대표 간담회를 주재하고 어항 시공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 22일에는 협회 임직원 춘계체육행사를 개최.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4월9일 정부 과천청사앞에서 농림부가 주관하는 협동조합 직거래장터 개장식에 참석, 16일에는 상임감사 재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4월2일 광주지역 갯생보호분과 회장단 회의에 참석, 14일에는 고대이스라엘 성서유물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 이어 대한적십자사 주관 북한비료지원 성금모금 한마음대회에 참석, 16일에는 광주전남 21세기발전협의회 주관 제9회 한·일 미술교류전에 참석, 23일에는 광주국악진흥회 99년도 제1차 이사회에 참석.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4월12일 광주시 제2건국추진위원회 3차 위원총회에 참석, 13일에는 광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이사회를 개최, 14일에는 2002 광주월드컵 추진위원회 오찬간담회에 참석.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4월15일 한국항만협회에 이사회에 참석, 20일에는 건설공제조합연수원 개원식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4월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관단체장 조찬회의에 참석, 12일에는 광주시 제2건국추진위원회 3차 위원총회에 참석, 14일에는 2002월드컵 광주시민토론회에 참석, 15일에는 광주시 제2건국 실천결의대회에 참석, 23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4월6일 한·일 친선협회중앙회 정기총회에 참석, 8일에는 전경련 회장단 고문단 회의에 참석, 9일에는 경영자총협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15일에는 재경 부여군민회의에 참석, 16일에는 카타르 국왕을 위한 오찬에 참석, 21일에는 경영자총

협회 회장단회의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4월8일 대전 매봉초등학교 공사현장에 출장, 13일에는 광양 묘도준설토투기장 공사현장에 출장, 16일에는 고흥 거금상수도 공사현장에 출장.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4월6일 수원 매송인터체인지 공사현장에 출장, 16일에는 울산 부릉고등학교 공사현장에 출장.

▲장정연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4월3일 제주도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4·3주



■ 손정식 한국어협회장은 4월20일 협회 회장실에서 시공회원사 대표 간담회를 주재하고 어항 시공관련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 손정식 한국어협회장은 4월8일 일본 수산타입즈사 오오조라 기사를 접견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 환담을 나누었다.

모식에 참석, 8일에는 제주도 백호기 체육대회에 참석, 18일에는 제주도 국제열기구 대회에 참석, 22일에는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통일정세보고회의에 참석, 28일에는 하이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정책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4월8일 여수공사현장에 출장.

인사

▲한국선박안전기술원 △경영기획부장 임광태 △총무부장 현충길 △검사제도부장 이상호 △강원지부장 김중열 △사전지부장 오영조

▲조흥공영주식회사는 최근 조사연씨(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를 부사장으로 발령했다.

외비남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단체
- ▲주식회사대아건설(사장 이정균)
- ▲조흥공영주식회사(사장 박규연)
- ▲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사장 김영운)
- ▲월양어업개발주식회사(사장 김응수)
- ▲인성실업주식회사(회장 박인성)
- ▲주식회사우창해사(사장 이봉태)
- ▲주식회사문원사(사장 김재국)
- ▲모슬포수협(조합장 김정진)
- ▲대형기선저인망수협(조합장 이수인)
- ▲군산시수협(조합장 임성식)
- ▲거제수협(조합장 정삼익)
- ▲부산시수협(조합장 임상봉)
- ▲웅진수협(조합장 홍성웅)
- ▲강릉시수협(조합장 박홍귀)
- ▲고흥군수협(조합장 정병남)
- ▲울산시수협(조합장 오성웅)
- 개인
- ▲이전호씨(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과장)
- ▲이남교씨(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과)
- ▲신석순씨(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과)
- ▲최재학씨(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 ▲조우연씨(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예산사업본부장)
- ▲기호준씨(국립수산물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 ▲최병원씨(전 수산청 어정과)
- ▲임종국씨(한국물류정보통신주식회사 사장)
- ▲고덕봉씨(한국수산물협회 부회장)
- ▲송상철씨(주식회사대한냉장물류프라자 부사장)
- ▲황덕환씨(전 주식회사한영감리단장)
- ▲신순균씨(해양수산부 어촌계획과)
- ▲황철민씨(해양수산부 어촌계획과)
- ▲손승렬씨(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장)
- ▲이태일씨(포항지방해양수

- 산청 어항공사과)
- ▲문용근씨(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 ▲조동영씨(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 ▲강호석씨(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
- ▲홍호선씨(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 ▲하태삼씨(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19호 선장)
- ▲이승현씨(남영건설주식회사 사장)
- ▲송중석씨(금광기업주식회사 이사)
- ▲유혁근씨(주식회사동일기술공사 부사장)
- ▲홍성대씨(주식회사세광종합기술단 이사)
- ▲박철훈씨(장흥군청 수산진흥과)
- ▲김영환씨(전 국립수산물중도매인협회 전무이사)
- ▲박기철씨(전 한국어선협회 전무이사)
- ▲손영수씨(전 한국어선협회 감사이사)
- ▲안중철씨(전 수협중앙회 부회장)
- ▲이신복씨(전 대한어망공업협회 전무이사)
- ▲전정진씨(전 수협중앙회 청라리지점장)
- ▲전병하씨(전 수산청 서기관)
- ▲노승만씨(전 국립수산물검사소 과장)
- ▲황찬우씨(전 수산청 사무관)
- ▲이준양씨(전 해양수산부 어선관리과장)
- ▲김하섭씨(한국선박안전기술원 관리본부장)
- ▲박정태씨(인천항부두관리공사 상무이사)
- ▲정영재씨(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전무이사)
- ▲김윤수씨(전 국립수산물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 ▲신관수씨(전 보고수산주식회사 전무이사)
- ▲이용숙씨(수협중앙회 상무)
- ▲류정로씨(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교수)
- ▲서승남씨(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 ▲김현주씨(한국기계연구원 해양기술부 선임연구원)

항포구·항만 예정지 국립공원지역서 해제

자연·집단취락지구 경계선도 조정

환경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포구나 항만예정지구 등을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의 경계선도 지역여건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공원지정 이전에 조성된 집단취락지구는 집단시설지구에서 완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20개 국립공원 전체에 대한 공원구역과 공원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10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조정기준, 제도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는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기준안에 따라

올 10월까지 공원별로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공원시설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공원계획변경을 결정할 계획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항포구와 항만예정지구를 비롯 △간척이나 개간 사업으로 지형이 현저히 훼손된 지역 △공원지정 이전에 형성된 집단취락지구 △

공원경계부의 농경지 △공원구역내 이미 도시화한 읍면 지역 등을 우선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의 자연경관과 지형보존 등에 대한 자원성 평가와 함께 공원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경관을 해치거나 중하류지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국립공원지역 해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건설업면허 등록제로 전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공포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턴키공사의 경우 일괄하도급이 가능케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5년마다 해야했던 면허갱신이 폐지돼 건설업체의 면허갱신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지금까지는 부실시공 및 다단계하도급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하도급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으나 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턴키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일괄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공능력공시제

어항청소선 소식

선명	5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월일	지역	선장	연락처
어항 901호	5.10~5.15 5.24~5.29	위도대천	최동립	(휴대폰) 011-247-5592 (호출기) 012-247-5592
어항 902호	5.12~5.19 5.24~5.28	백파, 수품수품 및 연안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호출기) 012-953-5590
어항 903호	5.10~5.15 5.24~5.29	마량소안, 득암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호출기) 012-953-5591
어항 904호	5.10~5.15 5.24~5.29	국동연안초도, 남도	박만성	(휴대폰) 011-232-5596 (호출기) 012-952-5596
어항 905호	5.10~5.15 5.24~5.29	육지, 매물도지세포, 다대다포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호출기) 012-1166-1358
어항 906호	5.10~5.15 5.24~5.29	후포직산, 사동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호출기) 012-909-5594
어항 907호	5.10~5.15 5.24~5.29	덕산, 장호, 임원대진, 거진, 아야진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호출기) 012-953-5597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오염된후 후회 말고 청정수역 보전하자

바다 바다 바다 바다는 삶의 터전

해양환경 보전위한 '수중침적 폐기물 정화사업'

어업생산성과 해양가치를 제고

한국어항협회 10억 사업비로 폐기물 조사 수거

한국어항협회는 4월14일 정부로부터 수중침적 폐기물 정화사업을 위임받았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10억원의 사업비로 어항, 항만, 강하구 공유수면에 대해 수중침적 폐기물을 조사,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선정하여 폐기물을 수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항협회는 이번 수중침적 폐기물 정화사업에서 남해안 일원의 어항 28개소, 무역항 11개소, 연안항 5개소, 강하구연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수중침적 폐기물 오염현황 조사에 의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폐어구, 어망, 로프, 각종 쓰레기 등이 퇴적되어 오염이 심각한 지역 4-5개소에 대한 정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중에 침적되어 있는 각종 생활

쓰레기, 어업폐기물 등이 해양환경 오염유발은 물론 바다경관 저해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 및 효율적인 수거 처리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어업생산성 및 해양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안 일원의 어항 항만 및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99년도 수중침적 폐기물 정화사업 조사지역은 다음과 같다.

□ 항만 16개소 : 목포 완도 여수 광양 통영 고현 옥포 장승포 진해 마산 부산 (이상 무역항), 팽목 신마복동신 나로도 부산남항(이상 연안항)

□ 어항 28개소 : 수품 서망 어란진 마량 풍남 내발 녹동 국동 돌산 미조 물건 맥전포 삼덕 다대포 구조라

다대포 지세포 능포 외포 광암 대변(이상 제1종어항), 득암 사동 시산 남도 안도

능양 신수(이상 제3종어항) □ 공유수면 : 강하구지역 (섬진강 영산강 낙동강 등)

어촌종합개발사업 소득향상에 기여 권역별 연간 7억9천만원 소득창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낙후된 어촌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소득향상은 물론 생활의 질적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권역의 생산량 증가율은 비사업권역보다 26%, 어가 소득은 13%가 증가하여 권역별로 연간 7억 9,000여만원의 소득창출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증양식, 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의 소득효과가 3-4년후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투자효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업인들이 크게 선호하는 사업이나, 극히 일부권역에서는 어촌계의 사업추진 경험미숙 등으로 부실시공한 사례도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4월8일 각 시·도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회의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횡집, 숙박시설 등 어촌계 자율사업보다는 다수어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촌계 자율사업의 설계 및 계약체결은 시장·군수가 대행토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함과 아울러 완공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의 소득향상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국 어촌을 160개권역으로 묶어 권역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98년도까지 77개권역에 2,193억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 763개소, 소득원 개발시설 492개소 등 총 1,255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올해는 신규 8개권역을 포함, 모두 24개권역에 총 사업비 349억 4,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프리랜서기술자 활용 확대

용역평가맨 업체소속과 동질대우

앞으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일정업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일명 프리랜서기술자들도 업체소속 기술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상시 기술자보유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한 업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프리랜서기술자들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프리랜서기술자의 활용이 확대될 경우에는 업체소속 기술자의 대량해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선 프리랜서기술자의 활용을 난이도가 비교적 높고 활용도가 넓은 부문에서 선별적으로 시작해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프리랜서 기술자들도 업체소속 기술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대상기술자는 책임기술자급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프리랜서기술자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업체의 상시기술인력 보유조건을 완화하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프리랜서기술자를 포함시켜 책임과 권한을 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기술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프리랜서기술자 등록 및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자와 수요자의 보호차원에서 각종 보험·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프리랜서기술자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기술자의 효율적 배치, 기술자간 경쟁 제고, 상시기술자 보유업체의 비용절감, 과당 스카우트경쟁을 위한 인건비상승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어항개발 17곳 기본설계 시행 회진항 등 신규지정 1.3종항

전남 장흥 회진항 등 전국 17개 지역 어항개발을 위한 총 45억원 규모의 기본설계 용역이 집행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작년 10월에 1.3종어항으로 신규지정한 전남 장흥 회진항, 강원 고성 공현진항 등 전국 17개 어항개발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어항별 시설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적격업체 선정기준 등 입찰시행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추진중이며, 용역사업 집행계획공고를 거쳐 내달 안으로 어항별 용역업체 선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총 45억원의 용역비가 투입될 이번 사업은 어항별 특성조사와 함께 육지·해상교통상황조사 및 입접지역 관련산업분석을 통해 해당 어항이 지역 중심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과업내용에는 이같은 사업기본계획 외에 환경영향평가용역도 포함시켰다.

해양수산부는 또 설계용역 일괄발주에 따른 용역업체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17개 대상어항을 2-3개씩 묶어 단위사업별로 입찰에 부치기로 했으며 동일업체가 여러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참가기준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신규지정어항개발 설계용역을 내년 상반기안으로 완료, 오는 2001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어항별로 100억-300억원의 시설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용역대상에 포함된 신규지정어항은 1종어항의 경우 공현진항 회진항 공촌항 삼길포항 남당항 구시포항 여호항 대포항 원전항 동암항 하호항 등 11개 어항이며, 3종어항은 선진포항 우이도항 연도항 도장항 남양항 호두항 등 6개 어항이다.

인공어초 제작·설치 통합발주 유지 품질확보 위해 시·도지사 관리감독권 강화

어족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전국 연안해역에 건설하는 인공어초시공사업의 입찰방식이 제작과 설치를 통합한 현행 일괄발주형태로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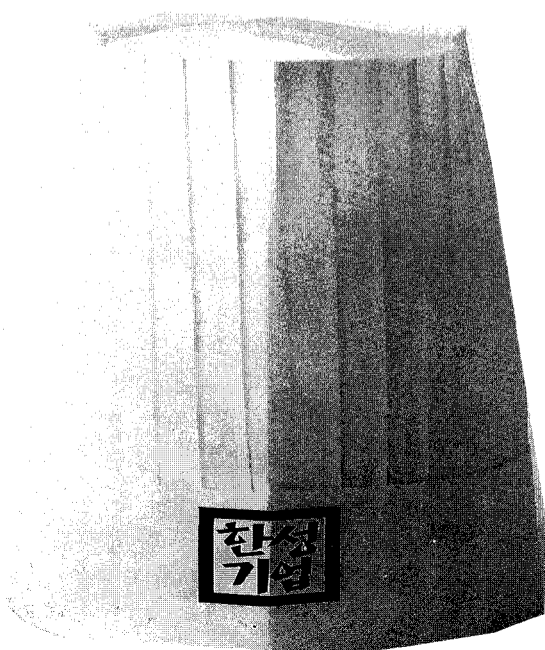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최근 인공어초시공사업의 부실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 인공어초구조물을 정부조달품목으로 지정, 관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통합시행보다 제작과 시공분리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인공어초구조물의 관급조달 계획을 전면 철회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결정은 인공어초구조물은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의해 가공제작되는 구조물로서 설치지역의 지형적 여건과 서식어종에 따라 다양한 규격으로 제

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표준규격에 의한 대량구매가 곤란하고 대량구매에 의한 경제성 확보라는 조달목적의 달성도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분리발주의 경우 제작과 운반·설치를 각각 다른 업체가 수행하게 되므로 제작자와 운반·설치업체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등 하자보수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작용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인공어초시설의 집행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공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시·도지사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키로 했으며 인공어초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를 통해 견실시공을 유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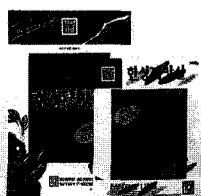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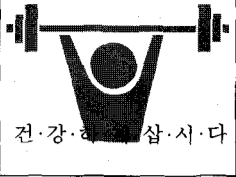
게맛살 맛이 일류호텔급?

일류 호텔들도 믿고 찾는 한성 게맛살의 맛 — 게맛살 하면 역시 한성게맛살입니다.

모양과 색깔이 똑같다고 다 같은 게맛살일까요?
맛에서 느낌까지 한성게맛살은 정말 달라요.
한성게맛살은 바다에서 갓잡은 신선한 명태살로 만들어 더욱 쫄깃하죠.
또 달지 않아 맛살 고유의 담백한 맛이 그대로 살아 있죠.
게다가 방부제나 인공색소를 전혀 안쓰니까
얼마나 기분이 깨끗하겠어요.
일류호텔들이 한성게맛살을 고집하는 것도
그래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성게맛살은
맛에서 느낌까지 일류호텔급이거든요.

한성게맛살





고혈압인을 위한 식사법

염분이 많은 식사를 했다면
다음식사는 빵과 우유에
과일로 하는 것이 좋다.

우리 나라의 경우 병에 의한 사인의 베스트 3은 뇌혈관 장애·암·심질환이다. 이중 뇌졸중이나 뇌혈전 등 뇌혈관 장애와 심근 경색이나 심부전 등의 심질환은 모두 고혈압인 사람이 걸리기 쉬운 병이다.

요즈음은 암의 공포가 여기 저기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직 고혈압도 무서운 병이다.

최저 혈압 90, 최고 혈압 150이상이라면 의심할 바 없이 고혈압이며, 요즈음도 결코 그 숫자가 감소하고 있지 않다.

고혈압에는 크게 나눠서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원인 불명의 것, 또 하나는 신장이나 내분비, 혈관성, 신경성 등 확실한 원인이 알려져 있는 것이 있다. 원인이 분명한 고혈압은 구체적인 치료에 의해서 정상적인 혈압으로 되돌릴 수가 있는데 곤란한 것은 고혈압의 대다수 타입은 전자의 원인 불명의 것이다.

소위 '고혈압 기미'라고 해야 할 가벼운 상태의 경우, 두드러진 자각 증상과 피로도 느끼지 못하며 혈압계의 숫자를 보지 않으면 모른다. 즉, 고혈압의 단점은 그다지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며 조금씩 혈관이나 심장 등의 부담이 커져서 어느날 갑자기 뇌출혈이나 심부전 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혈압은 치료의 필요가 어느 정도 높아져도 일상의 생활관리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염분을 멀리하면서 휴양을 취하고 수면을 충분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염분을 줄이고 각 영양소의 밸런스를 좋게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다. 차라리 1주일 정도의 커다란 폭으로 생각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밸런스가 취해지도록 식사법을 조절하여 증상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하루 염분 섭취량은 10g이하로 낮추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들다. 아침에 절인 생선구이, 김구이, 된장국, 김치 등을 반찬으로, 점심에는 라면만으로도 10g을 넘고 만다.

이처럼 하나하나 걱정을 하면 정신적으로 안 좋을 뿐 아니라 영양의 균형도 허물어져 버린다. 그래서 염분이 많은 식사를 했다고 생각되면, 이틀 날 아침을 빵과 우유에 과일로 대신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된장국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식이 요법같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여유를 갖고 해나가지 않으면 오래 계속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방법으로도 염분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생선구이나 후라이도 간장이나 소스를 치지 않고 레몬이나 유자, 굴 같은 산미로 맛을 낸다.

된장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양을 보통의 반으로 줄이면 결과적으로 염분을 줄일 수 있고 처음부터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30]

第3章 基礎工

3.3.4 시공관리

치환사공사의 시공관리는 품질관리와 규격 관리이다.

(1) 품질관리

치환사의 품질관리는 공사착수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입도분석이나 유기물 함유량 등의 시험을 하고 치환사로서 지시된 조건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공사규모나 공사기간에 따라 적시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입시의 확인에서는 1선마다 메스 실린더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산지에서 균일한 것이 공급될 경우에는 눈으로 또는 발취검사를 한다.

대체로 실트분 이하의 세립분이 10~15%정도 이하인 모래 또는 잡석이나 자갈이 사용된다.

(2) 규격 관리

치환재 투입후는 표면을 고르게 하는데 통상 치환재 위에는 사석 마운드가 축조되는 일이 많으므로 요철의 허용범위는 ±50cm정도로 한다.

양질의 모래를 사용한 치환지후의 지반강도는 투입방법이나 투입장소의 수심 등에 따라 다르나, 가장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저개식보운선에 의한 경우에도 표

층에 가까운 곳에서는 N치가 10이하가 되는 일도 있다. 따라서 후속공종의 시공전에 토질조사를 하고 목표토하는 지반강도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한다.

입자가 느슨하게 다져진 상태의 치환사 지반은 지진시에 액상화할 염려가 있으므로 샌드콤팩션과외공법 등으로 단단하게 다질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한다.

치환사공의 규격 관리항목과 그 허용범위는 표 3.3.1에 제시한 바와 같다.

(3) 기타의 유의사항

① 대체로 시공구역 주변은 어업활동의 장으로서 양호한 어장인 곳이 많다. 또 양식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도 있으므로 감독자는 사전에 관계자와 협의하

여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조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시공장소로부터 오타수가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또 유출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오타방지막공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③ 지반개량공법으로 치환이 필요할 경우,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재료의 투입에 의하여 부유하는 토사가 있을 수 있다. 이 부유토가 치환재료위에 퇴적된 상태로 구조물을 축조할 경우, 이 공법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독자는 퇴적의 상황이나 구조설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퇴적토사의 제거를 지시할 필요가 있다.

표 3.3.1 치환사공의 규격 관리기준

공종	관리항목	측정방법	측정밀도	측정단위	결과의 정리방법	관리기준치
치환	정장	스틸테이프, 간승 및 광파측거의 등으로 측정	시공완료후	10cm	관리도에 정장을 기입하여 제출	+규정하지 않음 -0
천단	단면	육상부:스틸테이프, 레벨, 광파측거의 등으로 측정	측정간격 20m이하	천단폭 10cm	관리도에 천단고, 비탈어깨, 비탈기슭, 천단폭 및 비탈면경사를 기입하여 제출	천단고 ±50cm 천단폭, 비탈면경사는 특기사항서에 의한다.
천단	단고	수중부:스틸테이프, 간승, 레드 또는 음향측심기로 측정	측정간격 20m이하	천단고 10cm	동상	동상

국민연금 10문 10답

1. 국민연금제도란?

○ 국민의 노후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해 두고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 과 그 유족이 연금으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가입대상은?

○ 18세이상 60세미만인 대한민족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중인 사람과 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국민연금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3. 가입자의 종류는?

○ 국민연금가입자는 가입이

자격 상실이나 사망한 경우

의무화되어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4. 부부가 함께 소득활동 하는 경우는?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부부가 공동 소득활동을 하는 때에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가입대상이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편이 가입해야 한다. (다만, 부부라도 각기 다른 소득활동에 종사하여 배우자도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다 가입한다.)
5.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또는 취업자, 사업가의 가입은?
○ 국외이주자, 외국회사, 국제기구 취업자가 외국의 공적연금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유학생 등 장기체류자는 가입대상이나 보험료는 납부예외처리 된다.
○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외국주재 사무소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

근로자나 사업차 잠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된다.
6.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전사회 구성원이 참여해야만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가입요건, 보험료납부, 연금급여 등을 법정화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적으로 운영되는 개인연금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18세이상 60세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입된다.
○ 개인연금은 사적인 금융상품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보완적인 생활수단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과는 다르다.
7. 국민연금 가입시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하나?
○ 사업장가입자는 월 보수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분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한다.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 소득의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차 상향조정될 예정,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소득의 9%, 임의가입자 및 일 반임의계속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중 중위수 소득에 속하는 소득의 3%에서 점차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8.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얼마의 연체금이 부과되 나?
○ 연금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발생하며,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마다 5%씩 가산되어 최고 15%까지 연체금이 부과된다.
○ 천재지변, 사업장 폐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의 경우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에 '연체금 징수에의 신청서'

를 제출하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9.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기간, 보조금액은?

○ 국고보조금은 UR(농산물개발협정)로 인한 소득능력의 감소를 감안하여 지역가입자중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에 한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정액으로 2,200원을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다.

10.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 국민연금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데, 이에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 된다.

생활정보

생활정보